

2018년 3월 31일 “(성경의 큰 숲 보기 11) 룯기: 유업을 잇게 하는 고엘”(룯 4:9-12)

<도입>

룯기는 인간적 사랑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 회복의 길을 가르치는 책임입니다. 보아스는 친척의 유업(유산)을 책임지고 무르는(대신 갚아주거나 사주어서 지켜주는) 자로 등장합니다. 유업을 무르는 자를 고엘(히브리어)이라고 하는데, 이 사상은 율법에서 왔으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보아스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예시됩니다.

[1] 배경

사사시대, 베들레헴에서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기근이 들어 모압으로 이사했습니다.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은 커서 모압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룯과 오르바).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1:1-5).

베들레헴의 흉년 소식에 나오미와 룯은 귀향하게 됩니다. 돌아온 나오미와 룯은 밭에서 수확할 때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과부나 고아 등..)의 삶을 보장하는 율법의 복지 정책입니다.

룯이 나간 밭의 주인은 보아스였는데, 그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룯을 보아스에게 출가시키려고(3:1) 보아스에게 접근합니다. 마침내 보리 수확 절기를 기회로 보아스와 룯은 만나 결혼을 약속합니다. 이 결혼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상황:

나오미에게는 엘리멜렉이 남긴 유업(밭)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죽으면 유업 이을 사람이 없고 대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룯의 미래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엔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 남편의 친척 중에서 고엘(유업을 무르는 자)이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문제는 고엘이 그 밭을 사주고 부양을 책임져도, 희년이 되면 돌려주어야 할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엘이 결혼까지 해서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유업을 이을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경우 이렇게 하면 유업이 끊기지 않고 가문에 남게 됩니다.

보아스와 룯 사이에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물론 오벳은 아버지 보아스의 혈통을 잇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의 유업을 그 가문에 남아있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서 다윗 왕가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 구속사에서 뼈대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 어려운 친척을 돌보기 위해 그의 유업을 사주고 부양을 책임지기도 하고, 이미 다른 데에 팔렸으면 되사주는 고엘 제도가 룯기의 주제입니다. 나오미의 경우엔, 고엘이 룯과 결혼까지 해주는 특별한 경우가 수반됩니다. 이 모든 제도적 일들은 사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사람의 사랑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2] 인류의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신다는 개념).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서 강조했듯이 유업은 백성이 율법(말씀)과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삶으로써 지켜집니다.

창세기 1,2 장에 나오는 인류의 첫 시기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고귀한 유업을 주십니다. 에덴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창 2:15). 말씀대로 순종하여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유업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 일에 애쓰면서 하나님의 펼칠 미래에 대해 관심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창 3 장에 보면 뱀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 유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사탄에게 빼앗겨서 사탄은 세상을 자신의 거짓말로 물들여 놓았습니다.

그 후 인간은 스스로는 에덴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상태를 '타락'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타락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유업의 근원과 질을 스스로 되찾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 머물면 자기와 가족과 자기 집단만을 위한 자기중심성으로 빠지는 동시에 삶에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차원을 놓치게 됩니다. 즉, 하나됨의 중요성, 관계의 중심성, 공동체적 성품, 소망을 향한 격려와 섬김 등,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입각한 중요한 소명의식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상황 속으로 오셔서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킬 뿐 아니라(하나님과 관계 맺음 - 구원), 성도의 삶에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스스로 되찾을 수 없었던 유업을 무르는 자, 고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인류의 고엘이심을 알았다면 무엇을 찾고 구하게 될까요? 무엇을 잃었는지 알아야겠죠? 나오미의 경우, 지키야 할 유업으로서 땅이었지만, 우리에게겐 보이지 않는 유업의 내용에 대한 갈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됨, 관계성, 공동체적 성품을 가꾸어 나 됨의 열매를 맺고, 공동체의 아름다운 협력으로 주님의 뜻(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이 에덴을 잃을 때 모두 잃은 것들입니다.

<맺음>

먼저 유업의 초점을 교회 생활(예배, 교제, 말씀, 나눔, 봉사)로 좁혀 예수님께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부족하게 나타나는 것은 잃은 것이며, 반면 즐겁게 여겨지는 것은 회복되고 있는 유업일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로 고엘 되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유업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 1.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에 행한 일과 열매를 함께 정리하고 나누어 보십시오. 인상적인 것으로 남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봅시다.
2. 내게 주신 것 중에 신앙의 길 속에서 제일 회복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의 꿈과 직결된 내용일 것입니다. 자유롭게 나누어 보십시오. (옵션 질문: 회복하고 싶은 이것이 구원받은 나에게 주시는 유업이라고 믿어지나요?)